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광주 - 동광령IC 구간 광역 통행료 환불
우천시 9홀 이후 홀별요금정산제 실시
예약 : www.hpdynasty.co.kr 061) 320-7700

최희섭 복귀 '초읽기'

2군서 실전 감각 찾아가 '컨디션 굿'

팀 지원 시급…1군행 더 빨라질수도

■ 최희섭 올시즌 성적

소속	타율	게임	타수	안타	홈런	타점	도루
KIA	0.208	33	120	25	4	14	4

'부활을 위한 카운트다운'

중심 타자 부재로 힘든 행군을 펼쳐온 KIA에 최희섭〈사진〉의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7일 롯데와의 2군 경기가 펼쳐진 함평야구장에 반가운 얼굴이 나타났다.

이날 지명타자로 나온 최희섭은 3타수 2안타를 기록하며 복귀에 청신호를 켰다. 최희섭이 한동안 방망이를 들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전망은 더욱 밝다.

애초 최희섭의 복귀는 수월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최희섭이 왼쪽 골반 통증까지 호소하면서 마사지와 수영 등 재활훈련에 초점을 맞춰 복귀 속도가 더뎠다. 지난달 말 배팅훈련에 들어갔던 최희섭은 통증으로 다시 방망이를 놓기도 하는 등 예상과 달리 공백이 장기화 국면으로 돌아섰었다.

부상 재발과 둔해진 실전 감각이 1군 합류의 관건이 될 전망이지만, 첫 실전에서 맹타를 휘두른 최희섭의 몸 상태는 일단 '이상무'다.

지난 5월 12일 최희섭이 2군행을 하면서 KIA는 29일 현재 고작 29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홈런 부문 꼴찌를 달리고 있다.

기동력으로 승부를 겨루는 7위 두산 '육상부'와 비교해 봐도 12개가 부족하며, 71개의 홈런포를 날린 1위 한화의 3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빅 초이'의 공백을 틈타 8개의 홈런포를 날리며 팀 타선의 중심역할을 하던 이재주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신인 나지완에 자리를 넘겨주고 2군으로 내려갔다. 장성호(홈런 5개)·채종범(〃 4개)으로 근근이 타선을 꾸려 나가고 있는 KIA에게 최희섭의 한방에 목이 마르다.

최희섭이 빠진 KIA는 6월 서재응·이대진·윤석민의 공백까지 겹친 최악의 상황에서 29일 현재 11승 12패로 승률 0.478로 5할을 밑돌았다.

5위 삼성 라이온즈와는 2.5게임차, 4위까지 내려앉은 롯데 자이언츠와는 6게임차. 좁혀질 듯 좁혀지지 않는 4위와의 격차를 따라잡아야 하는 KIA에게 최희섭의 한방이 절실하다.

이처럼 화력 지원이 시급한 형편이어서 코칭 스태프의 최희섭 컨디션 판단 여부에 따라 그의 복귀는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희섭은 지난해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갈비뼈 골절로 44일간 자리를 비웠었다. 돌아온 최희섭은 하반기 52경기에 나서 공백에 대해 속죄하는 맹공으로 0.337의 타율과 46타점 7홈런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4위권 진입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KIA에 최희섭이 언제 복귀할지,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팬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목포시청 축구단 내년 3월 창단

코치 2명·선수 34명

年 운영비 22억 예상

목포시청 실업 축구단이 목포국제축구센터 준공과 맞춰 내년 3월 창단된다.

목포시는 "목포국제축구센터의 효용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시민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목포시청 실업 축구단 창단을 추진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시청 축구단은 감독을 비롯해 코치 2명과 선수 30명 등 34명 규모로 구성되며, 이에 따른 연간 운영비는 22억원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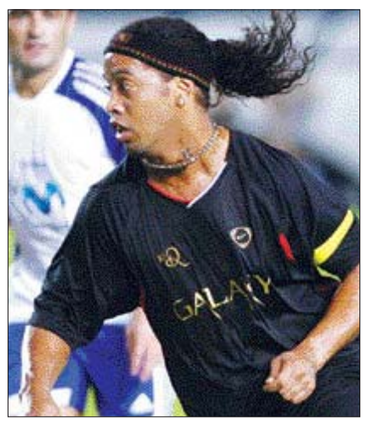
이와 관련 정종득 시장은 "1단계 순수 시청 팀으로 창단한 후 2단계로 시민구단으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가칭 '시민구단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목포 실업 축구단이 내년 3월 창단되면 각종 축구대회 개최는 물론 출전을 통해 스포츠 중심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나아가 적극적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축구스타 호나우지뉴 내달 2일 한국 온다

삼바축구 트레이닝 비법 등 공개



브라질 축구스타 호나우지뉴(28·바르셀로나·사진)가 7월2일 방한한다.

세계적 스포츠용품 메이커 나이키는 29일 "호나우지뉴가 새 축구화 '나이키 호나우지뉴 도이스 FG'의 출시에 맞춰 아시아 3개국을 차례로 찾는다. 한국에는 내달 2일 1박2일 일정으로 입국한다"고 밝혔다.

호나우지뉴는 입국하자마자 내달 2일 오후 2시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광희중학교에서 광희중 축구부 17명을 상대로 '삼바축구 4가지 트레이닝 비법'을 공개, 전수할 예정이다.

이어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오후 4시30분부터는 한강 물 위 20m 거리에 특별 설치한 골대에 슛을 넣는 이벤트를 선보인 뒤 '나이키3풋살 대회' 선발팀과 3대3 미니축구 경기를 펼친다.

축구 꿈나무들과 축구 프리스타일 배틀 시간도 마련됐다. 호나우지뉴는 오후 7시 30분부터 동대문에 위치한 축구용품 전문매장 카포에서 미리 선정된 12명의 팬들과 축구에 대한 열정, 삼바 축구 비법 등을 이야기하는 토크쇼 시간을 갖는다. 토크쇼는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www.afreeca.com)를 통해 생중계된다.

박인비 7언더 공동 3위

LPGA US여자오픈 3R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신세대 박인비(20·사진)가 시즌 세번째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골프대회에서 추격전을 펼치며 마지막 라운드 역전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

박인비는 29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에디나 인터라켄골프장(파73·6천789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2타를 줄여 중간합계 7언더파 212타로 베테랑 헬렌 알프레드손(스웨덴)과 함께 공동 3위에 자리했다.

불과 19일전에 프로 전향을 선언한 스테이시 루이스(미국)가 7타를 줄이며 9언더파 210타로 깜짝 선두로 나선 가운데 미국의 간판 스타 폴라 크리머가 8언더파 211타를 쳐 2위로 뛰어 올랐다.

전날 단독 선두였던 브라질 교포 안젤라 박(20·LG전자)이 2타를 잃어 중간합계 4언더파 215타, 공동 7위로 밀렸지만 동갑내기 김인경(하나금융)이 6언더파 213타를 쳐 선두에 3타 뒤진 5위에 자리했다.

세계랭킹 1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는 4오버파 223타로 공동 43위까지 미끄러져 통산 세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은 사실상 힘들어 졌다. 한편 전날까지 상위권에 있었던 신지애(20·하이마트)는 무려 6타를 잃어 버리는 바람에 3오버파 222타로 공동 36위까지 떨어졌다.

위창수 톱 10 '청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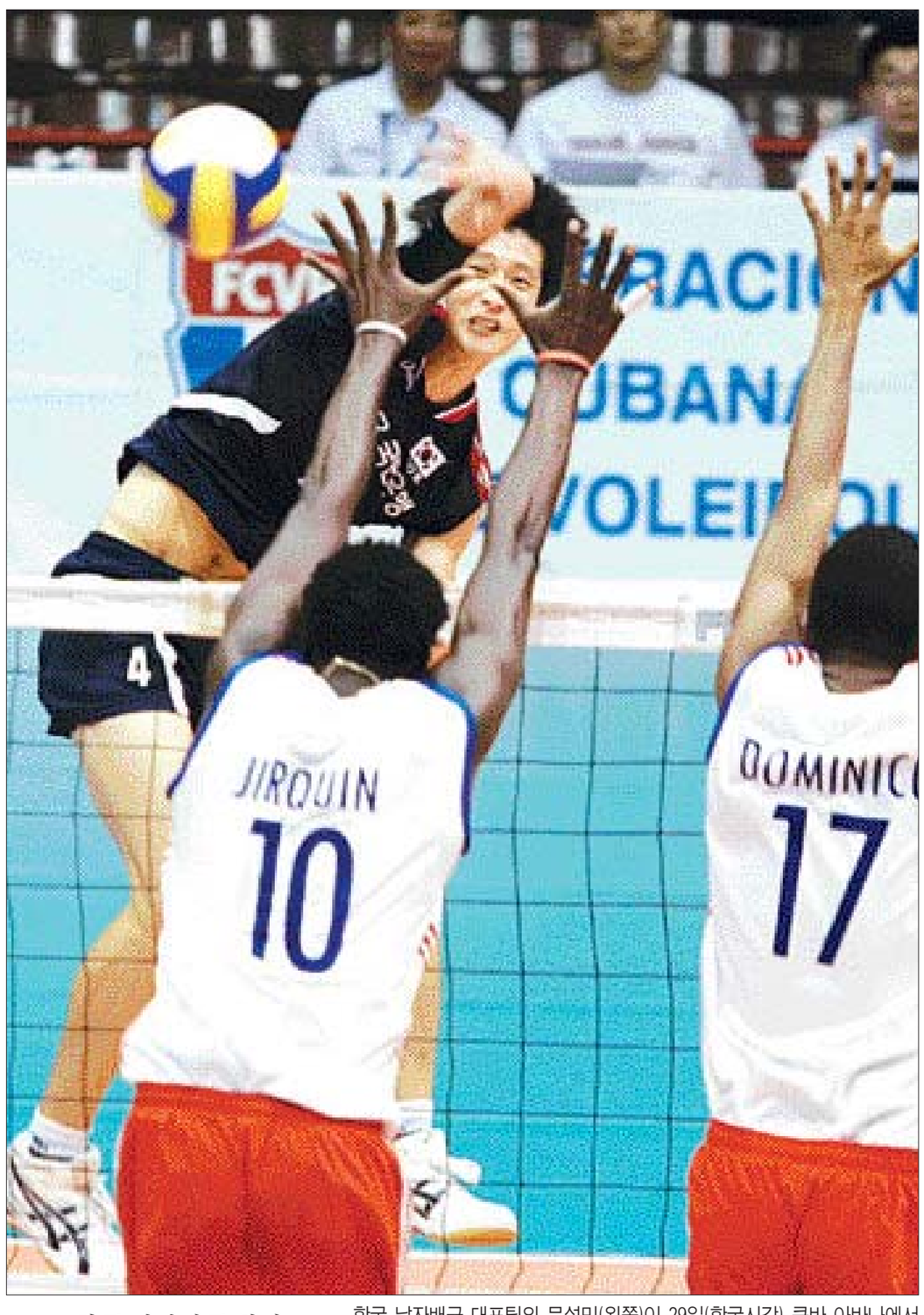
PGA 뷰익오픈 3R 공동 15위

위창수(36·테일러메이드)가 시즌 두 번째 톱10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

위창수는 29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블랭크의 워윅힐스골프장(파72·7천127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뷰익오픈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타를 줄여 10언더파 206타, 공동 15위가 됐다.

단독 1위로 나선 다니엘 초프라(스웨덴)와는 6타 차이가 나지만 공동 7위와 2타로 격차를 좁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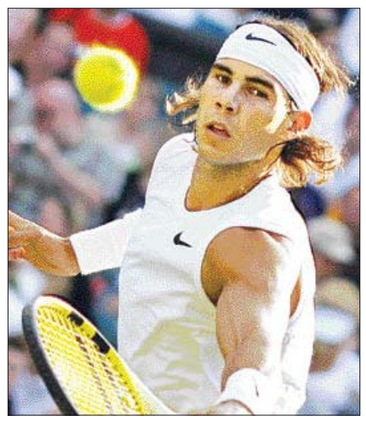
박진(31·던롭스릭슨)은 1오버파 73타를 쳐 3라운드까지 2언더파 214타가 돼 2차 컷을 통과하지 못했고 나상욱(24·코브라골프)은 기권했다.



한국 남자배구 참패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의 문성민(왼쪽)이 29일(한국시간)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2008 월드리그 국제배구대회' 예선리그 B조 6차전 쿠바와 원정 2차전에서 강 스파이크하고 있다. 한국은 세트스코어 0-3으로 완패, 6연패로 예선리그 최하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왼손 천재' 나달 16강 안착

윔블던테니스 남자 단식



'왼손 천재'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사진)이 윔블던테니스대회 남자단식 16강에 안착했다.

나달은 29일(한국시간) 영국 윔블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대회 6일째 남자단식 3회전에서 니콜라스 키퍼(32위·독일)를 3-0(7-6〈3〉 6-2 6-3)으로 물리쳤다.

미카일 유즈니(17위·러시아)와 8강 진출을 다투게 된 나달은 1994년 미국 월드컵부터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 3회 연속 스페인 국가대표로 뛰었던 미겔 앙헬 나달의 조카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지난 해 여자단식 챔피언 비너스 윌리엄스(7위·미국)는 마리아 호세 마르티네스 산체스(101위·스페인)를 2-0(6-1 7-5)으로 꺾고 역시 16강에 올랐다. 윌리엄스는 알리사 클레이바노바(42위·러시아)와 16강전에서 맞붙게 됐다.

타마린 타나수가른(60위·태국)은 마리나 에라코비치(53위·뉴질랜드)에 2-1(4-6 6-4 6-4)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올랐다. 남자단식에서는 아시아 선수들이 전원 탈락했고 여자부에서는 타나수가른과 정지에(133위·중국) 두 명이 16강에 진출했다.

찬호 내달 4일 선발 가능성

한국인 메이저리거 박찬호(35·LA 다저스)가 팀 동료 투수들의 등판 결과에 따라 내달 4일 다시 선발 출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다저스 웹사이트는 박찬호가 내달 2일이나 3일 경기에 롱 릴리프로 등판하지 않는다면 4일 미닛 메이드 파크에서 열리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29일 전했다.

관건은 팀 선발 요원 브래드 페니(30)와 구로다 히로키(33)의 복귀 일정이다.

조 토레 다저스 감독은 두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잇따라 부상자명단(DL)에 오르자 박찬호를 2경기 '땜질' 선발로 투입했다. 애초 계획은 둘 중 한 명이 복귀하면 에릭 스털츠(29)를 포함해 6인 선발 체제를 운용하고, 박찬호는 불펜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이었다.

토레 감독은 2일에는 클레이튼 커쇼(20), 3일에는 구로다를 각각 선발로 내보내고 박찬호가 이 두 경기에 롱 릴리프로 마운드에 오르지 않는다면 4일 경기에 선발로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커쇼와 구로다가 선발 호투한다면 시즌 네 번째 선발 등판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